

保險醫學會誌 : 第 21 卷 2002  
J. OF KLIMA : Vol. 21, 2002

# 남성건강보험 입원 및 수술급부금 지급분석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언더라이팅파트

조 성 · 김 용 은

Analysis of the Admission and Surgery Benefits among Male Adults

Sung Cho & Yong Eun Kim, M.D.

*Underwriting Department, Samsung Life Insurance Co., Ltd*

## I. 서 론

보험금 지급 양상과 언더라이팅과의 관련성은 계약심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나, 현재까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연구자료가 매우 부족하여 다양한 건강문제들이 보험금 지급 양상에 미치는 정도를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즉 보험금지급 현상이 건강보험 언더라이팅에 거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미 판매된 남성건강보험 상품들의 지급보험금 분석을 통해 향후 생명보험사의 건강보험 언더라이팅 방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000년 1월 ~ 2000년 12월까지 1년동안 과로스트레스관련질환으로 입원 또는 수술로 보험금이 지급된 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삼성생명 신바람건강보험의 과로스트레스 관련질환보장의 보장내용을 보면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고혈압, 간질환,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단 악성종양,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에 의한 입원·수술급부는 제외시켰다.

## 2. 입원보험금지급의 분석

입원보험금의 지급건 총 818건 中 상위 10대 질환이 592건으로 72.37%를 점유하고 있다.

### 1) 상위 10대질환 점유율

과로스트레스 관련질환보장 중 가장 많이 입원보험금이 지급된 질병명은 '알콜성간질환'으로 132건(22.30%)을 점유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많은 것은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으로 142건(24%)의 순이었다.

## II. 본 론

### 1. 성인남자 과로스트레스관련질환 건강보험의 보장내용

본 연구대상은 신바람건강보험의 가입자료

표 1.

과로스트레스관련질환 분류표

뇌 혈 관 질 환	뇌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출증	I64	고 혈 압	발작성 빈맥	I47	
	기타 대뇌혈관 질환	I67		심방세동 및 조동	I48	
	미분류 질환의 대뇌혈관 장애	I68		기타 심장성 부정맥	I49	
	대뇌혈관 질환의 휴유증	I69		심부전	I50	
심 질 환	심장침습이 없는 류마티스열	I00	당 뇨 병	심장 질환의 불명확한 기록 및 합병증	I51	
	심장침습이 있는 류마티스열	I0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기타 심장장애	I52	
	류마티스성 무도병	I02		본태성(원발성)고혈압	I10	
	류마티스성 승모판질환	I05		고혈압성 심장질환	I11	
	류마티스성 대동맥판질환	I06		고혈압성 신장질환	I12	
	류마티스성 삼첨판질환	I07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질환	I13	
	다발성 판막질환	I08		속발설 고혈압	I15	
	기타 류마티스성 심장질환	I09		인슐린-의존성 당뇨병	E10	
	협심증	I20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E11	
	기타 급성허혈성 심장질환	I24		영양실조와 관련 당뇨병	E12	
심 질 환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	I25	간 질 환	기타명시된 당뇨병	E13	
	폐색전증	I26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	
	기타 폐성 심장질환	I27		바이러스 간염	B15-B19	
	기타 폐혈관의 질환	I28		알콜성 간질환	K70	
	급성 심낭염	I30		독성간질환	K71	
	기타 심낭의 질환	I31		달리분류되지 않은 간부전	K7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낭염	I32		달리분류되지 않은 만성간염	K73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I33		간의 섬유증 및 경변	K74	
	비류마티스성 승모판 장애	I34		기타 염증성 간질환	K75	
	비류마티스성 대동맥판 장애	I35		간의 기타질환	K76	
심 질 환	비류마티스성 삼첨판 장애	I36		미분류 간장애(바이러스성간염, 간육아종)	K77	
	폐동맥판장애	I37	만 성 호 흡 시 질 환	급성 ·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는 기관지염	J40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I38		단순성 및 점액농성 만성 기관지염	J41	
	달리 분류된 질환의 심내막염 및 심장판막장애	I39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	J42	
	급성심근염	I40		천식	J45	
	달리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I41		천식지속상태	J46	
	심근병증	I42		위 이 궤 지 양 장 및 궤 십 양	위궤양	K25
	달리분류된 질환의 심근병증	I43		십이지장궤양	K26	
	심장실 차단 및 좌각 차단	I44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궤양	K27	
	기타 전도 장애	I45				
	심장정지	I46				

장기별로 보면 간질환이 총 315건으로 53.2%를 차지하고 있었다. 간질환에는 '알콜성간질환', '간의 섬유증 및 경변', '달리 분류되지 않은 만성간염', '간의 기타질환', '급성 B형 간염'이 포함되어 있다(표 2).

## 2) 연령대별 분포

과로스트레스관련질환 입원 상위 10대 질환을 연령대별분포를 보면 '십이지장궤양', '위궤

표 2. 과로스트레스관련질환 中 상위 10대질환  
입원보험금 지급건수 분포

병 명	건수	(%)
알콜성간질환	132	(22.30%)
위궤양	74	(12.50%)
십이지장궤양	68	(11.49%)
본태성(원발성)고혈압	50	(8.45%)
간의 섬유증 및 경변	50	(8.45%)
달리 분류되지 않은 만성간염	48	(8.11%)
협심증	47	(7.94%)
간의 기타 질환	47	(7.94%)
급성 B형 간염	38	(6.42%)
천식	38	(6.42%)
총합계	592	(100.00%)

- 조성·김용은 : 남성건강보험 입원 및 수술급부금 지급분석 -

양', '급성 B형간염', '달리 분류되지 않은 만성 간염'은 40대 이상에서 보다 주로 20대~30대에서 점유하고 있었다. 반면에 '알콜성간염', '고

혈압', '협심증'은 30대 이하에서 보다 주로 40대~50대에서 점유하고 있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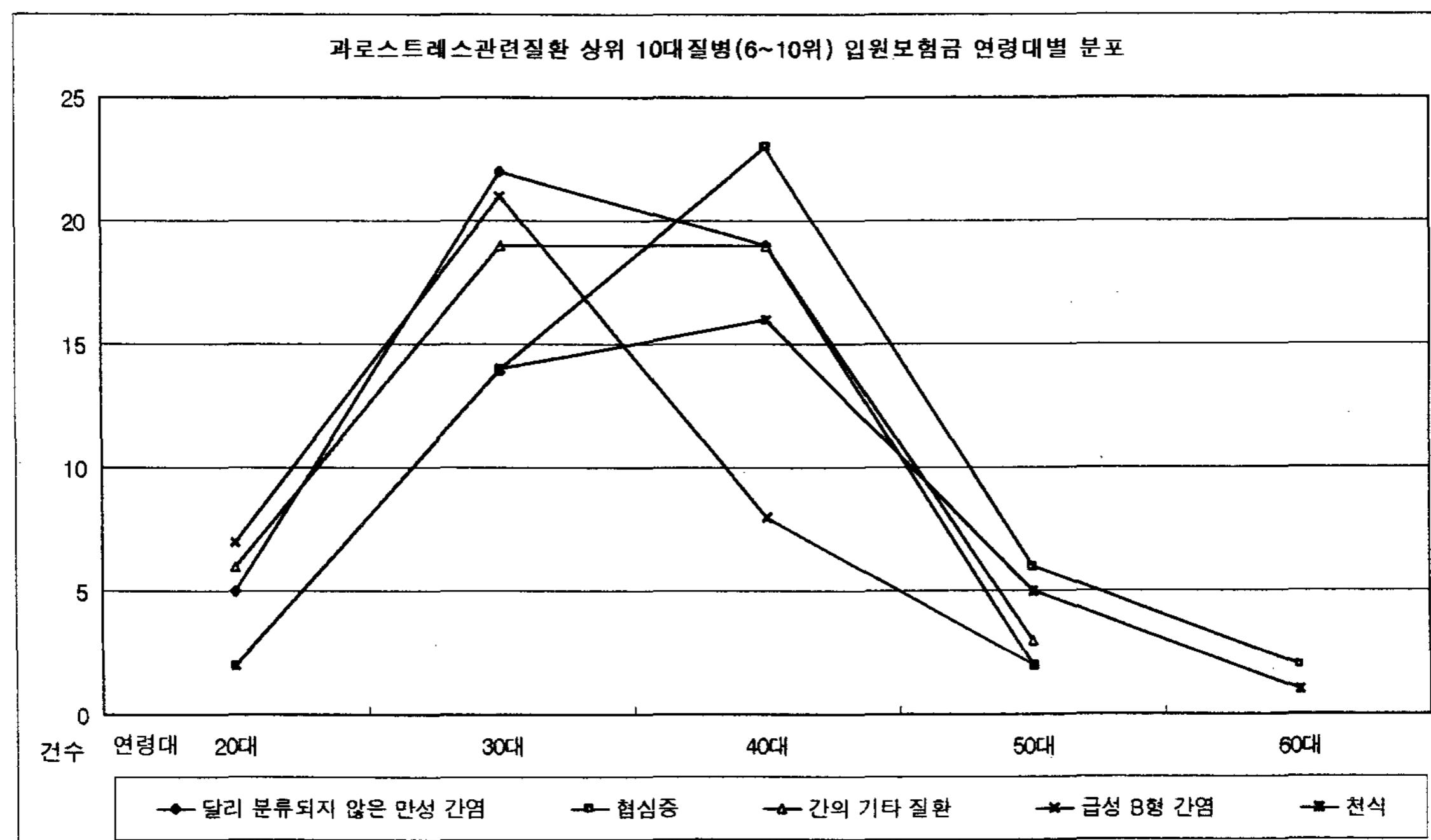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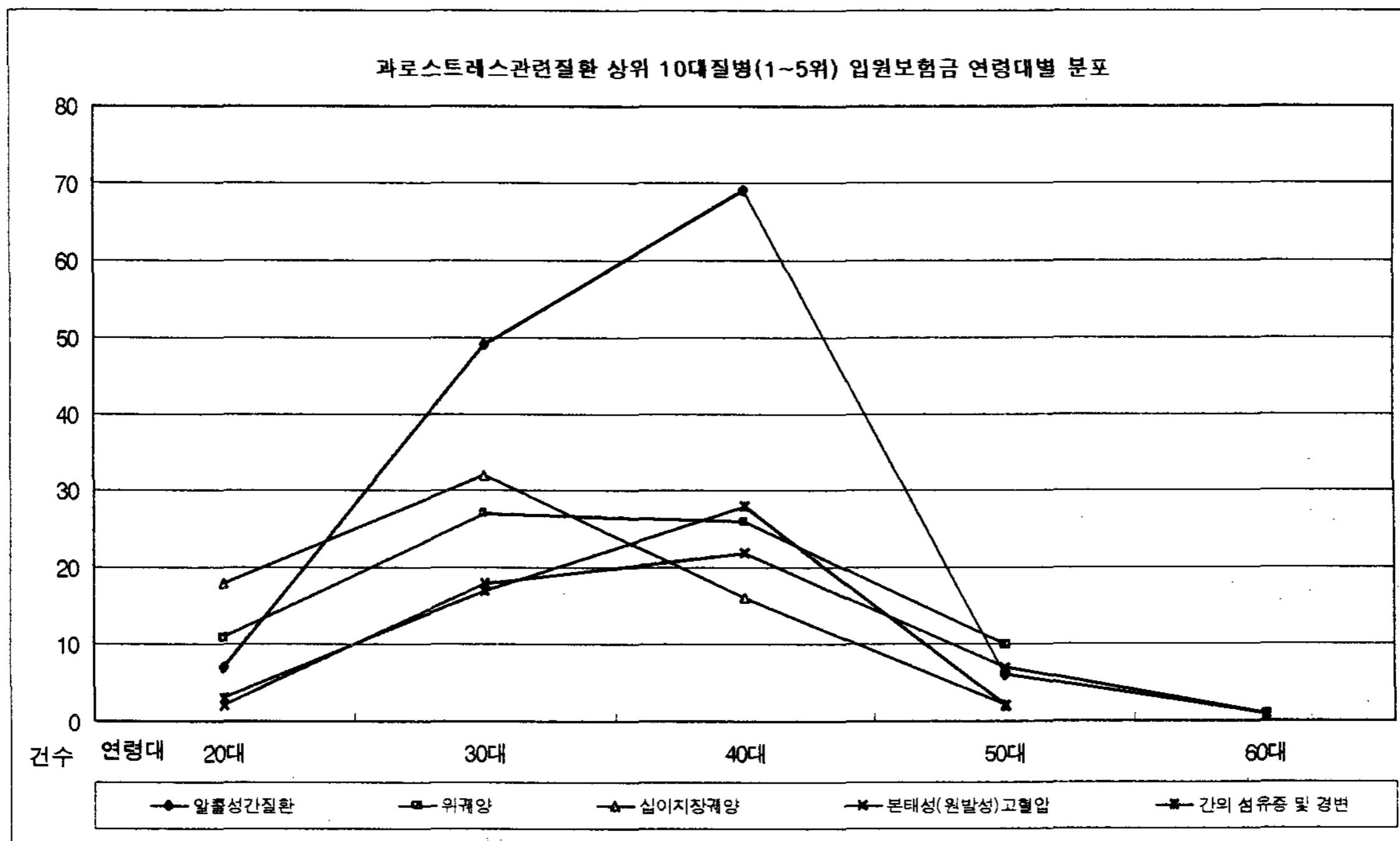


그림 1.

과로스트레스관련질환 상위 10대질병 입원보험금 연령대별 분포

### 3) 경과기간별 분포 현황

과로스트레스관련질환에서 입원까지의 경과기간분포를 보면 보험가입이후 초기 3~6개월

에서 평균보다 뚜렷하게 많은 건수를 보이는 질환들로는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달리 분류되지 않은 만성간염'이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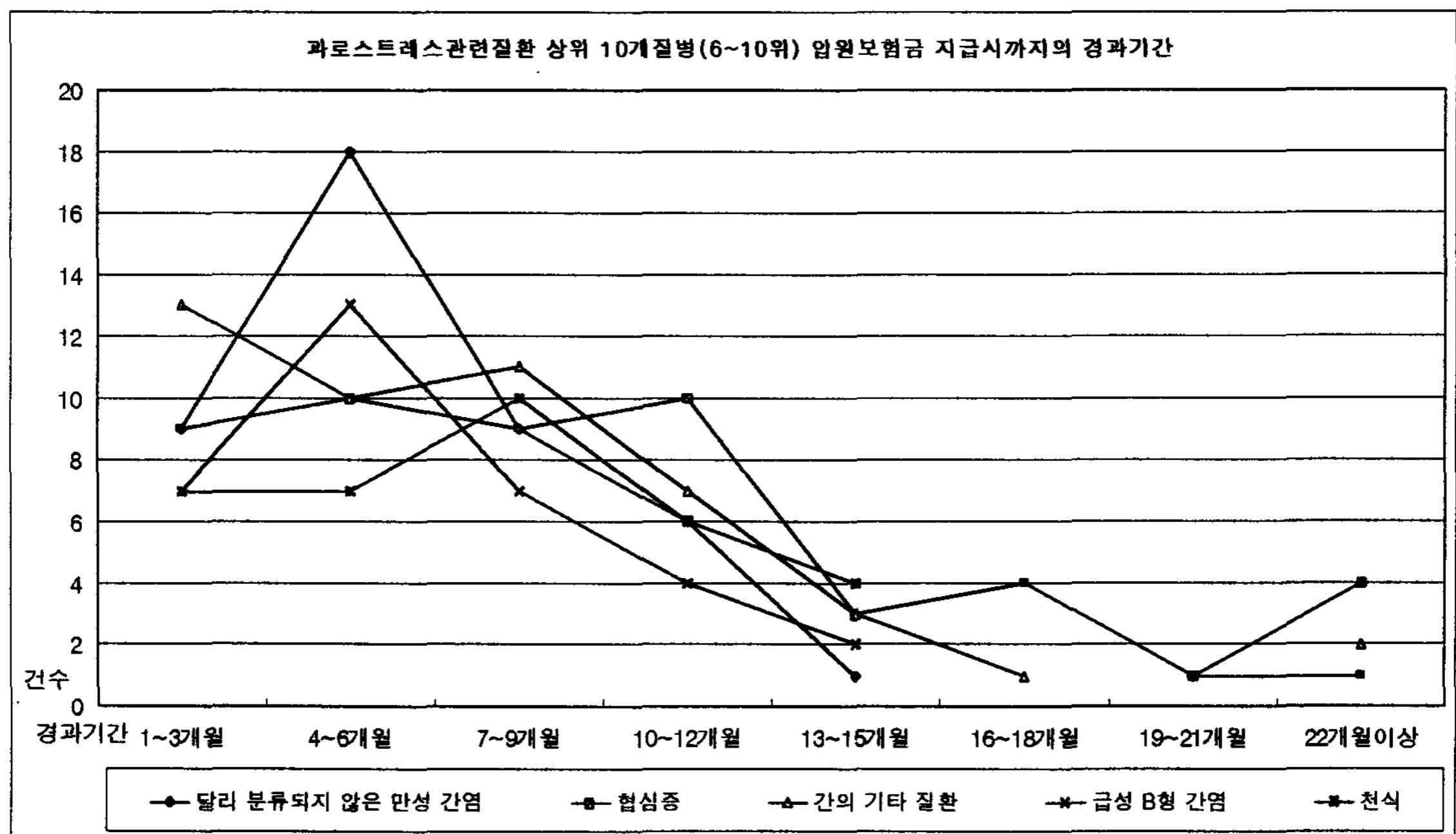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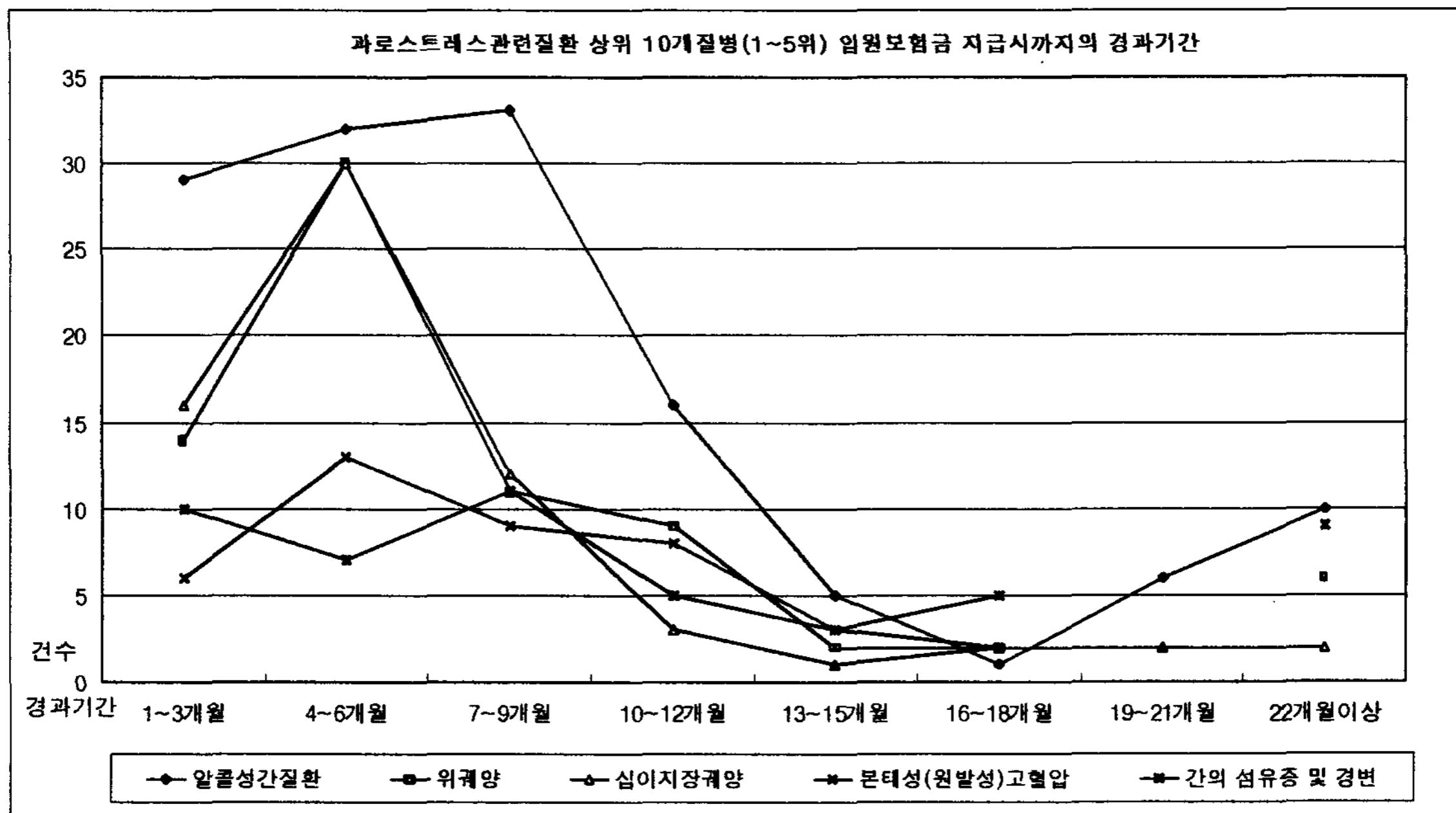


그림 2. 과로스트레스관련질환 상위 10개질병 입원보험금 지급시까지의 경과기간

표 3.

과로스트레스관련질환 상위 10대질환 지급건수

당사 2000년 통계자료 中 과로스트레스관련질환 상위 10대질환 입원보험금 지급건수 분포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 中 과로스트레스관련질환 상위 10대 질환 입원보험금 지급건수 분포			
순위	병명	건수	(%)	병명	건수	(%)	
1	알콜성간질환	132	22.30%	천식	56,099	20.99%	
2	위궤양	74	12.50%	위궤양	33,806	12.65%	
3	십이지장궤양	68	11.49%	간의 섬유증 및 경변	31,477	11.78%	
4	본태성(원발성)고혈압	50	8.45%	알콜성간질환	28,670	10.73%	
5	간의 섬유증 및 경변	50	8.45%	협심증	26,762	10.01%	
6	달리 분류되지 않은 만성간염	48	8.11%	본태성고혈압	26,694	9.99%	
7	협심증	47	7.94%	인슐린의존성당뇨병	21,070	7.88%	
8	간의 기타 질환	47	7.94%	신부전	15,922	5.96%	
9	급성 B형 간염	38	6.42%	상세불명의 당뇨병	14,526	5.44%	
10	천식	38	6.42%	십이지장궤양	12,215	4.57%	
총 합계		592	100.00%	총 합계	267,241	100.00%	

#### 4) 일반인구에서의 질병패턴과의 비교

2000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삼성생명 신바람 건강보험의 과로스트레스질환보장내용에 적합(fitting)시켜 보았을 때 상위 10대질

표 4.

당사 과로스트레스관련질환 상위 10대질환	당사 %	국민 %	비교
알콜성간질환	22.30%	10.78%	점유율 과다
위궤양	12.50%	12.65%	
십이지장궤양	11.49%	4.57%	점유율 과다
본태성(원발성)고혈압	8.45%	9.99%	
간의 섬유증 및 경변	8.45%	11.78%	
달리 분류되지 않은 만성간염	8.11%	<1%	점유율 과다
협심증	7.94%	10.01%	
간의 기타 질환	7.94%	<1%	점유율 과다
급성 B형 간염	6.42%	<1%	점유율 과다
천식	6.42%	20.99%	

\* 당사 과로스트레스관련질환 상위 10대질환 지급 총 4,352건 중 점유율

\* 국민건강보험통계 과로스트레스관련질환 상위 10대질환 지급 총 267,241건 중 점유율

\* <1% : 국민건강보험통계 자료상 200위권 외 (자료 無)

환을 보면 '천식'이 20.99%로 가장 많았다. 또한 '당뇨병', '신부전'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간의 기타질환', '급성 B형간염', '달리 분류되지 않은 만성간염'이 제외되어 있었다.

삼성생명의 질환패턴을 국민건강보험공단통계와 비교하여 보면 간질환의 점유율이 53.2% : 22.5%로서 약 2.4배 높다. '알콜성간질환'의 경우는 2.1배 높은데 비해서 '달리분류되지 않은 간염', '간의 기타질환', '급성 B형간염'은 10배이상 높았다. 이같은 자료로 볼 때 삼성생명 과로스트레스관련질환에서는 일반인구에 비해서 간질환으로 인한 입원이 아주 높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는 남녀 합산이기 때문에 분석에서 bias를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다(표 3), (표 4).

#### 5) 요약

2000년 1년 동안 신바람건강보험 입원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818건중 다빈도 상위 10대질환은 592건으로 72.37%를 점유하고 있었다. 상위 10대질환을 보면 입원은 알콜성간질환이 가

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위궤양 > 십이지장궤양 순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비교하여 볼 때 삼성생명 신바람건강보험 입원급부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따라서 상품구성면에서 간염과 관련된 질환 및 간의 기타질환의 역선택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고 언더라이팅 측면에서는 간에 관련된 기왕력 및 현재의 상태를 주의깊게 언더라이팅 하여야 할 것이다.

### 3. 수술보험금지급의 분석

수술보험금 지급건 총 159건 中 상위 10대 질환이 총 72건으로 45.2%를 점유하고 있다.

#### 1) 상위10대질환 점유율

과로스트레스 관련질환보장 중 가장 많이 수술보험금이 지급된 질병명은 '십이지장궤양', '위궤양'으로 32건(44.45%)이었다. 다음으로 많은 것은 '협심증' 13건(18.06%)이다.

장기별로 볼 때 '협심증', '류마티스성 승모판 질환', '비류마티스성 대동맥판장애'와 같은 심

표 5. 과로스트레스관련질환 中 상위 10대 질환 수술보험금 지급건수 분포

병 명	건수	(%)
십이지장궤양	22	(30.56%)
협심증	13	(18.06%)
위궤양	10	(13.89%)
발작성빈맥	6	(8.33%)
류마티스성 승모판 질환	4	(5.56%)
상세불명부위의 소화성 궤양	4	(5.56%)
기타 염증성 간질환	4	(5.56%)
비류마티스성 대동맥판 장애	3	(4.17%)
알코올성 간질환	3	(4.17%)
간의 기타질환	3	(4.17%)
총합계	72	(100.00%)

장질환으로 인한 수술이 차지하는 점유율을 보면 26건(36.11%)으로서 심장질환의 속성상 역선택의 가능성이 우려되고 또한 청약서상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란에서 효과적으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든지 심사에서 충분한 조사가 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할 것이다.

#### 2) 연령대별 분포

과로스트레스관련질환 수술 상위 10대질환의 연령대별분포는 건수가 작아서 분석을 생략한다.

### III. 결 론

향후 우리나라 보건당국과 의료계에서는 현재의 국가의료보험체계의 많은 문제점의 해결책으로서 민영의료보험의 전반적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민영의료보험의 국가의료보험체계를 대체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때 건강보험 언더라이팅 측면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남성건강보험의 지급현황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았다.

이와 같은 현실이해의 토대 가운데서 민영의료보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언더라이터가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언더라이팅 환경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 언더라이터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적 교육 과정의 운영

외래 또는 입원 치료를 요할 가능성이 높은 질병에 대한 언더라이터의 이해 역시 중요하며 질병의 종류, 치료 기간과 발병 횟수, 증증도, 완전 회복 여부 등의 정보를 잘 평가할 줄 알아야 한다.

최근 치료받은 병력사항이 있는 경우 현재의 상태 뿐 아니라 역선택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건강보험은 생존

급부형 상품이며 청약자들 간에 언젠가 발생할 사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 상품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언더라이터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교육과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일부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의적지식 보완, case-study 및 지급보험금 분석을 통한 경험축적을 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생명보험사는 이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언더라이터 협회를 중심으로 표준화된 전문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언더라이터는 '평생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지속적인 의적, 환경적, 도덕적, 재정적 종합심사를 위한 교육을 받음으로 global standard의 언더라이터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 ▣ 암 이외 중요 질병에 대해서도 면책기간 부여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험당국자들이 건강보험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선진사의 건강보험 운영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은 면책기간 또는 대기기간과 관련되어 현행 암에 대해서만 면책기간이 있는 것을 기타 중요질병에 대해서까지 합리적인 면책기간을 설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선진사의 민영 의료보험의 경우 preexisting condition 조항, 대기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

### ▣ 건강보험청약서의 개정

종신보험 언더라이팅은 사망의 위험(risk of mortality)을 고려하나 건강보험에서는 질병이 환의 위험(risk of morbidity)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언더라이팅은 종신보험 언더라이팅에 비해서 훨씬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질병 이환의 위험에 대한 평

가를 할 때 보험청약자의 연령, 성별, 경제적 요인과 생활습관, 직업, 취미, 질병과거력, 표준 하체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질병에 대한 과거력이다. 청약서에 고지된 질병에 대해서 언더라이터는 이 질환을 무시할 것인지, 부담보를 할 것인지, 할증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들 질병에 대한 추가 질문서 양식이 건강보험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현행처럼 건강보험과 종신보험을 막론하고 동일한 청약서를 사용하는 현실에서는 도덕적 위태나 역선택을 방지할 수 없다. 따라서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자세한 질문서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내용에는 질병의 과거력과 현병력, 증상들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 ▣ 削増法의 도입

현행 우리나라의 언더라이팅 방법을 보면 삭감법, 부담보법을 주로 사용하고 할증법의 경우는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이다. 그 결과 체증성 위험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평가가 안되어 삭감법이나 부담보법으로 인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에 국내 언더라이팅이 선진사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험상품을 만들 때에 할증 테이블을 만들어서 언더라이터가 체증성 위험에 대해서는 할증법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우리와 유사한 보험환경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요하지만 보험상품 출시전에 효과적인 언더라이팅을 위해 반드시 할증테이블을 만들어 준다고 한다.

### 참고문헌

1. Swiss Re Life & Health : *Medical Expense Insurance, Individual Underwriting Guide-*

- lines for Asia/Pacific Region, 1998.
2. Geoff C. Mark Prichard : *Private Health Insurance and South Africa, October 1990.*
  3. 금융보험통신 : '민영의료보험 전망과 과제' 2000년 7월 4일.
  4. 보험신문 : 2000년 7월 3일.  
보험신문 : 2001년 9월 3일.
  5. 보건복지부 웹 사이트 : [www.mhw.go.kr](http://www.mhw.go.kr)
  6. Swiss Re Life & Health : *Medical Expense Study.*
  7. Swiss Re Life & Health : *Medex Pricing Manual.*
  8. Harriett E. Jones : *Medical expense coverage, Principles of Insurance: Life, Health, and Annuities.* 1999; 340-371.
  9. Kenneth Huggins : *Underwriting individual Health insurance, Operations of Life and Health Insurance Companies.* 1992; 253-259.
  10. Muriel L. Crawford : *Health insurance, Life & Health Insurance Law.* 1998; 392-417.
  11. 일본보험의학회지 : 1985; p.766-771.
  12. 사망원인통계연보 : 통계청 1999; p.293-299.
-